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BOMBS THAT BROUGHT US TOGETHER

가제 : 우리를 뭉치게 한 폭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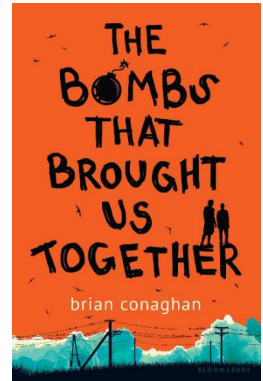
저자 : Braian Conaghan

출판사: Bloomsbury USA Children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코스타 어린이 도서상 결선 진출작

* **6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전작 「When Mr Dog Bites」로 ‘2015 카네기 메달’ 결선에 진출하며 유망주로 떠오른 작가의 또 다른 화제작**

* **“시대를 초월하는 풍자... 전쟁과 점령, 전체주의의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전하고 폭력의 영향을 진술하면서도 선정적이지 않게 그린 이야기” – 커커스 리뷰**

열네 살 찰리는 ‘리틀 타운’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내내 이곳에서만 살았다. 리틀 타운은 ‘올드 컨트리’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두 나라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바람에 마음 놓고 사는 건 포기한 지 오래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원래 리틀 타운은 올드 컨트리의 일부였지만 리틀 타운이 독립을 했고, 자신들의 국토를 빼앗긴 것으로 여기는 올드 컨트리는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단다. 그 소문을 뒷받침하듯, 찰리가 부모님과 사는 집에서도 수시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드 컨트리가 국경 너머로 투척하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였다. 문제는 이 지칠 줄 모르는 공격이 외부에서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리틀 타운 내부에도 만만치 않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찰리의 엄마는 천식 환자라 몸이 조금만 약해지면 숨을 헐떡였다. 리틀 타운을 취약피락하는 정권은 엄격한 규칙을 마련해놓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엄청난 대가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찰리는 늘 조금이라도 정해진 규칙을 거스르거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범 학생이다. 그런 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픈 엄마에게 꼭 필요한 호흡기를 구하는 것. 리틀 타운의 의약품과 식량을 모조리 거머쥐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빅 맨’에게 잘 보여야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는데, 약을 구한다 하더라도 수 마일을 걸어가서 받아와야 한다. 이런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찰리에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올드 컨트리에서 국경을 너머 리틀 타운으로 건너온 한 가족이 찰리네 동네에 자리를 잡고, 찰리와 동갑내기

인 이 집 아들 파벨 두다와 친구가 된 것이 시작이었다.

서로 쓰는 말도, 지금껏 당연한 듯 알고 살았던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다른 찰리와 파벨은 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공유하며 문화적 충격에 휩싸인다. 찰리는 파벨에게 리틀 타운의 엄격한 규칙을 가르쳐주고, 적대시하는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이유로 고깝게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준다. 하지만 엄마 약 때문에 늘 ‘빅 맨’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파벨도 똑같이 겪는 일이 생기고, 국가 지도자를 표방할 뿐 알고 보면 순 강패나 다름 없는 빅 맨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날로 심화된다. 게다가 늘 리틀 타운을 다시 빼앗기 위해 버리고 있던 올드 컨트리가 거대한 폭탄까지 터뜨리기로 계획하면서, 두 소년은 큰 갈림길에 놓인다. 더 이상 가만히 복종하고 견딜 수 없는 리틀 타운의 삶, 동시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올바르게만 살아온 찰리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일으키고 두 나라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간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현재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인접 국가와의 갈등 상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전쟁과 전체주의가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려낸다.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과 폭력 사태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려는 보통 시민들의 안타까운 삶과 국민을 가장 위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정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의 고통스러운 일면을 주인공 찰리의 유머 감각과 그리 무겁지 않은 어조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코나한(Brian Conaghan)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현재 더블린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화가, 장식 전문가, 바텐더,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시도해 왔다.

제목 : THE ISLAND AT THE END OF EVERYTHING

가제 : 모든 것이 끝나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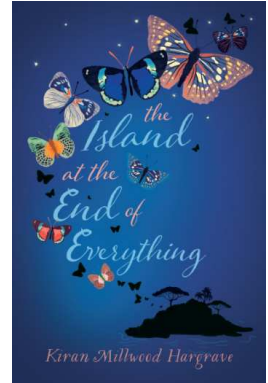
저자 : Kiran Millwood Hargrave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워터스톤 ‘이달의 아동도서’로 선정된 『*The Girl of Ink & Stars*』의 작가가 선보이는 두 번째 소설

*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한 어린 소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시적으로 묘사한 소설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 필리핀 쿨리온 섬에서 태어난 에이미는 외지 사람들이 ‘환자’라 일컫는 엄마와 단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왔다. 수녀님들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교에도 다니고, 엄마와 집 근처 아름다운 들panse 작은 씨앗도 심고,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 풍경을 보며 사는 것만으로도 에이미에게 더 바라는 건 없었다. 물론 수녀님들이라고 다 똑같이 친절할 것은 아니고, 클라라 수녀님처럼 환자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는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 하고 집에 오더라도 대문 너머로는 발도 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 친구들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쏙살같이 달려가는 에이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에이미만 보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곤 한다. 이런 일들이 가끔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섬에서 제일 좋은 친구인 엄마와 사는 것이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때와 같은 1906년 어느 날 오후, 동네 사람 전체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열린 날 에이미의 이 작은 행복은 끝이 나고 말았다.

쿨리온 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교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평소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과 에이미의 엄마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다. 섬의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는 수녀님들까지 한데 모인 이 자리에 목사님의 소개로 웬 낯선 남자가 연단에 올라섰다. 수도 마닐라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는 설명과 함께 등장한 자모라 씨가 ‘환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분들’이라는 말로 입을 열자마자 에이미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쿨리온 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대놓고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라라 수녀님 같은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듣기 거북한 용어는 쓰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모라 씨는 목청을 높여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나병’이라는, 이 섬에서 ‘환자’보다 더 금기시되는 단어도 아무 거리낌없이 써 가며 의학의 발전으로 곧 병을 치료할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혼자 신이 나서 설명하더니, 갑자기 ‘무고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섬에 정착하여 집까지 부여 받고 격리되어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족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 섬에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정부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로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일반인들과 함께 살도록 하고 격리 구역에는 오로지 환자만 모아두기로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도 이어졌다.

에이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늘 두꺼운 천으로 얼굴을 다 덮어 쓰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형을 따라 쿨리온 섬에 들어온 이웃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병 때문에 코가 흔적밖에 남지 않은 엄마가, 큰 용기를 내어 얼굴을 덮은 천을 벗고 자모라 씨에게 가족과 떨어져 살라는 말이나고 되묻자, 그는 대뜸 소리쳤다. “옆에 앉은 딸이 당신처럼 코가 없는 몰골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다른 환자들의 아우성도, 화가 나서 따지고 울며 애원하는 이야기들도 모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에이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섬을 떠나야 했다.

자모라 씨는 쿨리온 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코론 섬에 이미 정부가 고아원 시설을 마련해 두었고, 마치 부모를 잃어버려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처럼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아이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면서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그는 고래고래 주장했다. 미국과 인도, 중국, 스페인에서 나병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70명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계획에 동의했고, 오랫동안 에이미의 엄마와 섬 사람들을 돌봐온 의사 선생님까지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목사님과 의사들, 정부 기관 사람들이 이미 쿨리온 섬 주민들의 인생을 정해놓고 통보를 한 셈이었다.

환자 가족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모라 씨가 통보한 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에이미는 코론 섬의 고아원에 들어가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뿐이다. 엄마가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려는 에이미에게 실낱같이 가늘지만 분명 희망이 담긴 가능성이 찾아오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에이미는 얼른 그 기회를 붙잡는다. 소외당한 사람들, 내쳐진 존재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키란 밀우드 하그레이브(Kiran Millwood Hargrave)는 런던에서 태어나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했다. 시인으로 데뷔하여 상을 수상하고 시집 세 편을 발표했다. 2016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The Girl of Ink & Stars』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